

# ‘남원형’ 항공산업 모델 키운다

세부 실행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관광·레저스포츠 분야 연계  
드론 특화·항공 레저 활성화  
경량항공기 체험 등 관광수요 기대

남원시가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경량항공기 등 항공산업의 안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최경식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항공산업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형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남원만이 할 수 있는’, ‘남원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 레저스포츠 분야와 연계한 드론 특화산업 발전방안 제시 및 실행과제 발굴과 경량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 레저 활성화 방안 제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지역 특화 산업 서비스 모델 발굴,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도출 등이다.

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민선 8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드론산업 기반을 구축했다.

또 국제항공연맹(FAI) 남원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등을 포함한



최경식(왼쪽 두번째) 시장 주재로 ‘남원형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 중이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개최를 통해 드론 레저 스포츠 메카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드론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유소년 드론 스포츠 장비 지원, 항공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지리산, 섬진강 등 아름다운 경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경량항공기 체험 프로그램을 전복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와 연계해 미래 관광형, 공공형 등 남원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제 운영할 노선까지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용역을 통해 항공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에 남원만이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 새로운 남원시 항공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 있는 용역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고창군, 아라테아파트 등 5곳 선정...20만원 상당 물품

고창군이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을 크게 줄인 지역 내 공동주택 5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평가 결과 ‘우수 공동주택’에는 아라테아파트, 성산현대아파트, 장산빌라, 우일아파트, 미영아파트 5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공동주택에게는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최대 21일간 수수로 감면 및 2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된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인센티브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감량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제도다.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배출량을 분석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했다.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RFID 기반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 배출량을 세대로 자동 계량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생활화 및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안전관리정책 행안부 장관상

특별교부금 2억원 확보

고창군이 군민들에게 우수한 안전관리정책을 펴 온 끝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지난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안전문화대상은 정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고 우수한 안전문화 활동 및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안전생활실천 분야 최고상이다.

군은 한빛원전 비상대비 주민보호 훈련, 기상재

난 상황 적극 대응, 지진방재 계획 수립 및 시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사회·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또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교육,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추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써 왔다.

상을 받은 고창군은 인센티브로 2024년 재난관리평가의 가점과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안전한 고창, 안전일류도시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광한루원에 설치작품전

내년 1월11일까지 ‘바람의 시’  
유명 작가들 71발 작품 20여점

남원시가 광한루원에 71발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바람의 시(時)’를 내년 1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전시회에서는 전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 20여점이 소개된다.

남원시는 조선 시대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관아 정원인 광한루원과 71발 작품이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예술의 세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33호인 광한루원에는 보물 281호인 광한루, 견우직녀의 애절한 사랑이 서려 있는 오작교, 달맞이 장소인 완월정 등이 있다.

김중학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원은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관광명소로, 이번 71발 전시회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멋스러운 전통 정원과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 목재문화체험장 이달내 완공 눈 앞



정읍 목재문화체험장 조감도.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에서 새로운 체험관광의 명소가 될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연면적 788.42㎡)은 부전동 산338-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2억원(도비 42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입 시설은 목공체험실, 목재전시실 등으로, 초급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안에 완공을 목

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서는 임산물체험단지에는 차향문화관, 차향다원, 임산물 향기온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면 임산물체험단지 등 주변과 연계한 연령별 맞춤형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명소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청년 인재 공직·공기업 취업 지원

26일까지 ‘취업시험 준비반’ 무료 수강생 모집...내년 1년간 교육

정읍시가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과 공기업 진출을 돕는다.

정읍시는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청년들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탈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내년도 청년취업시험 준비반(공무원 및 공기업NCS)에 참여할 수강생 120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중인 시민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로 18세부터 45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일 기준 응시자 본인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평생학습관 3층 사무실에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험준비반의 운영 과정은 공무원 직강 60명, 공무원 동영상 강의 40명, NCS 동영상 20명 등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13일까지 44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교재비 별도)다.

시는 오는 30일 모집희망자를 대상으로 과목별 레벨테스트를 거쳐 성적별로 반 편성을 해 효율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운영 6개월만에 전북 지방공무원 시험에 4명이 합격하고 지난 11월에는 금융권(NCS반)에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시험준비를 도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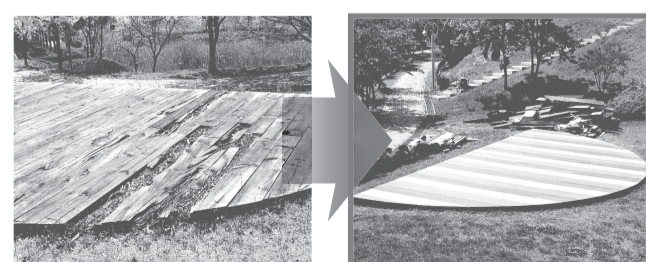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